

중소 탄소기업 토탈 지원 서비스

탄소융합기술원, 복합섬유소재산업 기술·사업화 지원 대상 9곳 선정... 맞춤형 지원 나서

전주시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을 통해 탄소산업 관련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복합섬유소재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복합섬유소재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지역 내 자생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토탈 기업 지원 서비스로 기술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각각 지원과 전담을 맡는다.

기술원은 올해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주)블스원 신소재와 제이엘피, 코스텍 유한회사, (주)더원씨엔티, (주)이지컴퍼지트, (주)테라엔지니어링, (주)메디후, (주)엘렉신소재, 제이엘피 등 9개 기업에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참여 기업들은 전라북도에 소재한 탄소섬유와 탄소복합체, CNT 등 복합부품소재분야 기업과 천연섬유 복합재 분야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 시와 기술원은 시제품 제작과 수출 멘토링, 제품고급화, 특허 및 인증, 인증평가, 국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탄소 관련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성장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입주 공간을 마련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술원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지난 해 12월 신상품개발지원센터를 완공했으며 하늘항공 등 9개 입주기업을 선정했다. 또 최근 창업보육센터 증축 공사를 완료, 올 상반기 중 11개 탄소기업을 추가로 입주시킬 예정이다.

이외에도 각종 탄소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내·외 우수 탄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우수한

장비와 우수기술 인력을 바탕으로 신상품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관계자는 "복합섬유소재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탄소기업이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시제품제작과 마케팅, 수출, 투자유치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매출 상승과 고용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 프로그램이 전주지역 탄소기업이 생존하고 도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현장활동

'2018 국제 3D프린팅·드론 코리아 엑스포' 준비현장 방문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4일 전북도와 전주시가 공동주최하는 '2018 국제 3D프린팅·드론 코리아 엑스포' 준비현장 점검 활동에 나섰다.

위원회는 2018 국제 3D프린팅·드론 코리아 엑스포가 열리는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특별전시장에서 행사 준비현황을 점검, 시설물 안전점검 등 현장 점검을 마쳤다.

이기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전주시가 미래신성장산업의 초석을 다지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미래산업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한 행사 준비 및 행사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전주시의회에서도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비

전주시가 도시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차량들을 일제 정비한다.

시는 주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4월 한 달 간 도로에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는 등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장기화된 경기 불황 탓에 각종 세금 및 과태료 체납 등으로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1차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처리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통해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동시에 도로 위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와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자동차, 기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의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선 견인조치해 도시미관을 회복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견인차 보관소 수용 공간 부족에 따른 견인 등 행정처리 지연 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총 3억원을 투입해 팔복동에 위치한 옛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장에 300여 대의 견인된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6,000㎡규모의 견인차보관소를 조성하고 있다.

이달 중 공사가 완료되면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주정차차량 등에 대한 견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전북장애인복지관 개관 30주년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이해 4일 오후 1시 30분 장애인복지관 내 체육관에서 송하진 도지사, 양복규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이사장, 국회의원, 정호영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관장, 복지관 직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덕진구, 에코시티 무인민원 발급서비스

덕진구는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에코시티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3월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고 8일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9일부터 무인민원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새마을금고 더샵2차지점 자동화기기 창구에 설치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발급 가능한 민원종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교육부증명서, 국제관련증명서 등 75종이다.

이로써 에코시티 주민들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각종 증명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구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은 "에코시티에 아파트 입주가 계속 되면서 민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빠르고 편리한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규남 기자

허위 교통사고 보험금 5억원 편취한 일당 검거

허위로 교통사고로 가장해 보험금 5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주범 심모(45)씨를 구속하고 공범 50명 중 4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주범 심씨의 주도로 지난 2016년 12월 19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해 보험사로부터 1건당 100여만원씩 모두 74차례에 걸쳐 총 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전에 교통사고 가·피해자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역할

분담을 나누고, 경미한 교통사고는 사후 접수 시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조기에 합의할 경우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악용했다.

심씨는 사람들을 범행에 가담시키기 위해 앱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끌어들이었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려 쉽게 유혹당했다.

이들의 범행은 심씨의 범행 제안을 받은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들쭉났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10명을 전국적으로 수배하는 한편, 지속적인 추적수사를 통해 검거할 예정이다.

/이삼민 기자

전주산업단지 근로자·방문객 위해 환경정비

시, 1억원 투입... 안내표지판 16개 정비·노후도로 300m 구간 재포장

전주시가 전주산업단지 근로자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노후도로를 재포장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총 1억 원을 투입해 전주산업단지 내 노후화된 시설 개선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주 산업단지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을 방문하는 타지역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주산업단지 내 대로변에 설치

된 녹색고 퇴색된 안내판 16개를 새로 정비한다.

특히 이번 안내판 정비 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변동사항을 반영해 입주 기업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시인성이 뛰어나고 전주만의 디자인을 적용한 안내판으로 정비해 도시미관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화돼 다니기 불편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제2일반산업단지 주변 덕진구 팔복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주검사소에서 쉼보레 전주서

비스센터 구간 노후도로 약 300m 구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재포장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도 개선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산업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보강해 나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